

차례

차례	1
<포럼>	
영역운동의 의미	2
영역운동과 이슈운동	4
현역과 함께하는 영역운동	24
<영역운동 선포식>	
교육영역운동	36
교회개혁영역운동	42
NGO영역운동	46
선교지원영역운동	47
경제경영영역운동	50

영역운동의 의미

손봉호 교수 특강

영역운동과 이슈운동

안현식 교수 발제

1. 들어가는 말

동문 영역 운동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느냐는 것은 SFC에게 있어서 필연적 과제이다. SFC 운동원인 학생들은 졸업을 하면 졸업 후 SFC 출신으로서 어떻게 SFC 정신에 충실한 삶을 살아갈 것이냐라는 질문에 마주치게 된다. 따라서 동문 영역 운동은 SFC가 시작될 때부터 등장한 이슈라고 할 수 있다. 광의의 개념으로 영역 운동을 정의한다면 SFC 출신의 동문들의 영역 운동이 이미 각 분야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그 동안 동문 영역 운동에 대한 논의들이 있어 왔으나 최근 몇몇 동문들의 노력으로 구체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영역 운동의 방향과 실천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는 것은 추후 영역 운동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영역운동의 범위와 주제에 따른 분류를 통해 방향성의 정립을 모색하고, 영역운동이 기독 NGO 형태로 실천될 수 있음과 그 배경을 설명하고, 이어서 구체적 실천 내용을 요소 별로 분석한 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저널운동과 컨퍼런스와 연계하여 설명함으로써 영역운동의 실천의 구조와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영역운동의 방향

1) 동문 영역 운동의 지향점과 운동의 정의

동문 영역 운동에 대한 이해를 위해 이 운동이 나아가야 할 포괄적 지향점 또는 비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동문운동이 학생들의 SFC 운동에 대한 지원과 동문들 사이의 교류와 교제에 국한된다면 기존의 동문회로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초기 동문들에 의해 지속적인 활동이 있어왔고 각 지역별 대학별로 동문 모임이 이미 활성화 되어있다. 그러나 동문운동이 SFC 내부적으로만 제한 될 경우 한국사회와 교회에 대해서는 미미

한 역할로 끝이 날 것이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동문운동이 SFC에 주어진 사명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역할을 감당해 내고자 한다면 동문운동이 영역운동으로 구체화 되고 그 이해의 폭이 한국교회와 한국사회 나아가 세계교회와 지구촌 전체로 확장되어야 할 것이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더욱 정교화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소위 운동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운동성이 어떻게 나타나야 운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먼저 개인적인 운동이 있을 수 있다. 직업과 직장을 따라 또는 이슈를 따라 자기가 처한 곳에서 스스로 실천하는 것이다. 이것은 광범위하게 동문 운동 영역에 포함될 수 있으나 소극적 개인적 운동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고유한 의미에서의 운동은 조직을 갖춘 집단이 어떤 생각의 체계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파급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집단적인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운동이 개인 영역으로 제한되면 파급 효과나 리더십의 발휘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영역운동을 개인을 넘어선 조직적 집단적 운동으로 나타날 때 본격적인 의미에서의 운동이라 할 수 있다.

2) 기존의 동문 영역운동의 열매

SFC를 거치고 학생신분을 벗어나면 자동적으로 동문이 된다. 이런 관점에서 SFC는 그 동안 많은 동문을 배출했고 그 동문들의 면면에서 이미 영역운동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SFC 출신의 몇몇 동문은 한국 사회와 교회를 향한 운동에서 기독교 시민 운동과 교회개혁의 영역에서 상당한 기여를 하여왔다. 예를 들어 손봉호 교수와 이만열 교수의 경우 한국 복음적이고 보수적 노선의 기독교계에서 기독교 NGO를 만들어내고 직접 운동의 선봉에 서서 리더십을 발휘하여 왔다. 이것은 넓은 의미에서 영역운동의 열매의 구체적인 예로 이해될 수 있다. 그 외에도 1980년대 이후 다양한 운동들이 기독교 NGO 또는 기독교단체가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에 몇몇 SFC 동문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이미 동문들의 영역 운동이 상당부분 존재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자신감 있게 영역운동의 성과로 자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 이유는 먼저 이러한 동문 운동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점이다. 물론 SFC 출신들이 협력하고 동역한 경우도 있지만 그 사례가 빈약하다는 것은 부인하기 힘들다. 학생운동 당시의 열정에 비해 졸업 후의 동문들이

함께하는 집단적 운동의 시도들이 거의 없었고 SFC가 연결고리의 역할을 해 주는 경우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운동에 있어서의 동기와 배경에 SFC의 역할이 어느 정도이냐는 점도 존재한다. 즉 SFC에 들어오기 전 그리고 졸업한 후 또 다른 계기로 영역운동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운동원들은 SFC에 오기 전 이미 고신 교단 등의 교회에서 신앙교육을 받았고, 그 운동의 신앙적 원천이 고신 교단 운동의 과정에서 나온 부분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구분은 실제적으로 불필요한 것이다.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다양한 과정과 경로로 통해 한 인물을 준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단체가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주었느냐는 평가는 무익하다. 다만 SFC의 동문운동의 성과를 면밀히 관찰하기 위한 용도에서 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의 복음주의 권의 교회운동 및 사회운동에 있어서 SFC 출신들이 상당한 역할을 해 왔다는 점은 SFC의 운동성이 영역운동으로 나타난 예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3) 동문 영역운동의 범위에 따른 분류

SFC 동문의 영역운동이 있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된 지 이미 오래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영역운동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있어왔으며 동시에 개념적으로 치밀한 이해가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영역운동에 대한 이해가 불충분한 점은 영역운동이 지체되는 원인의 하나로도 지적될 수 있다. 이 운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함께 공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영역운동에 대한 이해의 공유는 추후 운동의 방향성과 실천에 있어서 불필요한 논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영역운동의 범위에 따른 관점에서 보면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구분은 분석을 위한 편의상의 구분이며 어느 한가지 보다는 여러 형태가 중첩되어 나타날 수 있다.

① SFC 내부 운동

이 관점은 SFC 동문운동이니 SFC라는 이름을 걸어야 한다는 관점이다. 타 선교단체의 경우 그 단체만의 동문모임을 지속하고 있고 상호연계가 잘 이루어진다는 점과 그 동문들의 지원에 의해 단체가 유지되고 있다는 면에서 실질적 효용성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SFC 이름을 유지하였을 때 그 운동

은 SFC 만의 운동이 될 수밖에 없고 한국사회나 한국교회 전체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데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SFC 기독교사 운동을 한다고 하면 그 단체에는 자연스럽게 SFC 출신들만 참여하게 되며 다른 기독교인들은 배제될 수밖에 없다. 물론 이러한 운동이 성공적이라면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를 지닐 수 있지만, 운동의 영역이 확산 되는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그 운동에 대한 영향력도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범주에는 SFC 교사모임이나 SFC 직업별 모임 등을 상정할 수 있다.

② 이념 중심 운동

이 관점은 SFC라는 이름은 사용하지 않지만 SFC의 이념인 개혁신앙을 지향하는 단체 안에서나 기독교 단체 운동 내부에서 영역운동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개혁주의적 기독교사회를 구성하고 여기에 SFC 뿐 아니라 타 선교단체 및 선교단체 경험이 없는 많은 기독교사들을 포함시켜 함께 운동체를 구성하는 것이다. 다만 운동의 이념적 지향점이 기독교 운동임과 동시에 개혁신학에 기초하는 운동이라면 이념 중심 운동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개혁주의를 특징 있게 표방하지 않더라도 기독교적 정신을 추구하는 운동이라 하더라도 이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 운동에 SFC 출신들이 창립에서부터 운영 및 발전시키는데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동문 영역운동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동문운동은 SFC가 한국교회사적 위기 속에서 태어났고 민족적 과제에 반응하면서 출발했다는 점에서 그 정신을 이어가는 운동 형태라 할 수 있다.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에 신앙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은 SFC 운동의 성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운동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운동들은 SFC 이름이 직접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동문 개인의 개별적인 운동으로 제한 될 수 있고 그 운동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SFC 동문들을 참여시켜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과제로 남는다. 따라서 동문들을 이러한 모임으로 유도하고 네트워킹을 해 줄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 이 범주에는 기운실, 개혁연대 등 현재 활동하고 있는 다수의 기독교 NGO들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③ 일반 단체 운동

이 관점은 SFC라는 이름을 내세우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념 중심 운동과 유사하나 그 단체가 표방하는 이념을 개혁주의로 제한하지 않고 공공선이나 정의와 평화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기존의 NGO나 정당 단체 등에 참여하거나 새로운 단체를 만들어서 운동하는 경우이다. 이 영역을 동문 영역운동에 넣는 데에는 이견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동문들이 직업과 관심영역을 따라서 다양한 사회단체에 소속될 수 있고 개혁적이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일반화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동문 개인의 노력에 따라 SFC의 정신의 확산이 가능한 것이며 그렇다면 한국사회 전반에 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그 단체 속에서 동문들이 SFC 이념에 따른 정체성을 유지하고 실천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운동에 있어서 경계하여야 할 부분이 있다. 만약 그 단체 속에서 개혁신학의 가치에 배치되는 사안에 대해 일방적으로 추종한다면 신분상으로는 SFC 동문이라 할 수 있으나, 내용면에서는 동문 영역운동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서로 경쟁 갈등하는 단체에 소속되어 정치적 입장 등에 따라 동문들이 서로 대척점에 설수도 있다. 소속된 단체의 지향점과 그 실천적 내용이 개혁신앙을 벗어날 경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동문은 주체적인 운동체로서 그 단체를 변화시키거나 아니면 그 단체를 탈퇴하든지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단체는 경실연, 참여연대 등 NGO와 노동단체, 정당단체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운동의 범위에 따라 3가지로 영역운동의 형태를 분류하였는데, 동문운동에 대한 이해를 위해 위 분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보다 중첩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즉 SFC 내의 소규모 모임은 그 자체가 최종 목표가 되기보다 운동의 확장을 위한 준비 단계로서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네트워크화 되어 개혁신앙에 기반한 기독운동도 하면서 동시에 일반 사회 영역에서의 단체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운동에도 참여하는 것이 동문운동을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시점과 환경에 따라 또 개인의 상황에 따라 강조점이 다를 수 있으며 동문 영역운동 차원에서도 이 3가지 형태의 운동이 적절히 선택되고 강조되도록 안내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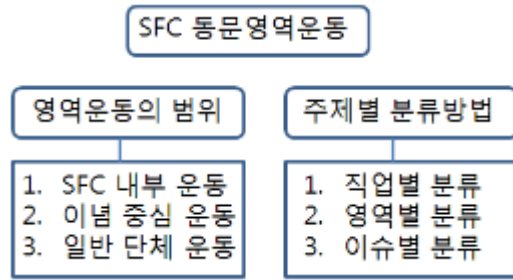


그림 1. SFC동문 영역운동의 범위와 분류

4) 영역운동의 주제에 따른 분류

영역운동의 주제를 어떻게 설정하고 전문화할 것인가는 영역운동의 출발점에 서 있는 시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부분이다. 초기에 영역의 주제에 대한 분류를 어떻게 하였느냐에 따라 운동의 동력이 어느 정도 나타날 수 있는지가 결정될 수 있다. 잘못된 분류는 초기부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주제에 따른 영역운동의 분류의 방식은 3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다.

① 직업별 분류

직업군에 따른 분류는 영역운동을 용의하게 정리할 수 있는 분류이다. 직업은 동문의 활동 영역을 가장 잘 드러내 주기 때문에 분류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직업군에 따른 모임은 다양한 관점에서 이슈를 도출해 내기 어려울 수 있으며, 직업에 따른 배타적 성향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육영역에 교사들만 참가했을 때 학부모와 연대가 되지 않으면 운동의 파급에 한계를 가질 수 있다. 또한 사법 영역에 법률가들만 참여한다면 사법 개혁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객관적 관점들을 도출하는데 한계에 부딪칠 수 있다. 또한 직업의 이익에 반하는 이슈를 도출하거나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있다. 영역 운동은 결국 사회적으로 또는 교회 영역 내에서 공론장을 형성하고 집단적인 공론화로 통한 개혁을 지향하는 것이 될 것이므로 직업에 따른 주제의 분류에 있어서는 이러한 단점들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

② 영역별 분류

운동영역에 따른 분류는 SFC 이념에 따라 운동이 가능한 영역으로 주제를 도출해 내는 것으로서 top-down 형식의 분류라 할 수 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분류는 강령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교회 내적 운동과 교회 외적 운동을 나눌 수 있다(표 1 참고). 교회 내 영역은 선교, 교회 개혁이라는 주제가 도출 될 수 있다. 사회 영역은 보다 더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라는 측면과 국내와 국제 등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물론 어떤 특수 영역을 정의하였다고 해서 그에 따르는 운동이 항상 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회적 이슈를 고려하여 운동의 발전에 따라 점진적으로 세분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예를 들어 교육영역이라면 처음에는 교육영역에서 출발 했다가 교사모임 학부부모모임 또는 교육정책 개혁 모임 등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③ 이슈별 분류

이슈별 분류는 사회적 교회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이슈를 발굴하고 이에 따라 영역 운동을 도출하는 방법으로서 bottom-up 방식의 분류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핵발전소 문제가 있으면 생태와 핵관련 운동 단체를 조직하고 그 이슈에 대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이 분류 방법은 주제의 도출이 시사적이므로 즉각적인 운동성이 나타날 수 있는 점과 과제와 목표가 분명하다는 장점이 있다.

위에서 언급한 영역 운동의 주제별 분류는 3가지 분류 중 하나를 선택하기보다 3가지 분류를 서로 보완하면서 운동 영역을 도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②와 ③ 다음으로 ①의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추천한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아래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3가지 분류 방식이 적절히 조합되어야 동문들이 직업이나 관심영역에 상관없이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영역운동에 가담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교육영역에서는 좋은 교사운동 등 직업에 따른 분류가 가능하며 교회개혁이라는 주제는 이슈별 분류에 따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며, 신학 영역은 영역에 따른 분류로서 동문 운동을 도출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표 1. 영역운동의 주제별 분류와 예

대분류	영역별 분류	직업별 분류	이슈별 분류	운동의 예
교회	선교	선교사		
	신학	신학자	교회개혁	교개혁, 개혁연대, 기윤실
	목회	목회자, 사모		
	SFC	간사		
사회	정치	법조인	정치개혁, 사법개혁	공정연대
	경제	경영인, 직장인	경제정의	경실연, 참여연대
	언론	언론인	언론개혁	참여연대, 기윤실
	문화	문화 예술인	기독교문화	
	통일	군인	통일운동	평화연대
	생태	NGO 활동가	반핵운동, 생태운동	핵없는세상기독교연대
	교육	교사, 학부모	교육개혁	좋은교사운동, 사교육없는세상

3. 영역운동 실천의 형식-기독교 NGO를 중심으로

1) 영역운동의 실천의 구체화-기독교 NGO 운동

영역운동은 개인이 혼자서 하는 소극적 운동을 넘어선다. 개인으로 머무르지 않고 어떤 성경적 가치를 타인에게도 공감할 수 있게 하고 실천하게 하는 영향력을 확대해 갈 때 진정한 영역운동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개인적 운동도 가치의 파급에 영향력을 줄 수 있다. 어떤 기독교적 가치에 대한 내용에 대한 글과 책 출판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모범적 사례를 스스로 실천함으로써 귀감이 되어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얻고 스스로 따르도록 하는 영향력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것이 실천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개인이 아닌 집단적 운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적극적 집단적 운동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운동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기독교운동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영역운동의 단계는 3가지 단계로 볼 수 있다.

1단계는 소극적 개인적 운동 단계이다. 이 단계는 개인이 어떠한 성경적

가치의 주제에 대한 생각을 개인적 차원에서 실천하는 단계이다. 2단계는 이러한 가치를 확산시키고 파급시키기 위해 집단화 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치가 집단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의미한다. 3단계는 이 운동이 열매를 맺는 단계로서 가치에 동의하는 다수의 개인이 생겨나고 그 가치를 개인의 영역에서 실천하는 것이다. 또한 운동의 내용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화 기관화(institutionalize)하는 것도 3단계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운동의 발전단계로 볼 때 집단운동 단계는 기독 NGO (Non-Government Organization) 혹은 기독단체의 조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참고로 기독 NGO라는 표현은 용이한 이해를 위해 사용한 잠정적인 표현이다. 예를 들어 기독단체 (Christian Organization), 기독운동 단체 (Christian Movement Organization) 등 다른 표현이 가능하다.) 기독 이러한 집단적 조직체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의한 소모임 형태에서 이것이 발전되어 회원, 조직, 재정 등의 체계를 갖춘 조직체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러한 기독 NGO는 사회의 일반적인 NGO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면서도 기독교적 정체감을 유지해야하는 특수성을 가진다. 먼저 영역운동의 실천의 형식으로서 기독 NGO를 상정할 수 있음을 기독 공론장과 기독 시민사회 운동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기독 NGO 운동과 교회의 상호 관련성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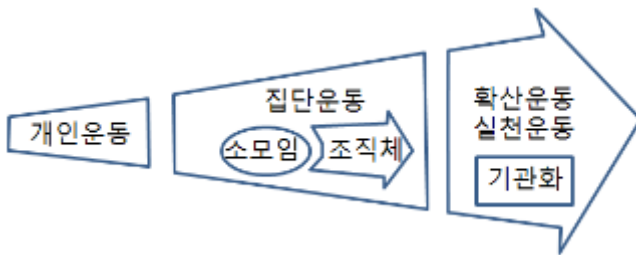


그림 2. 영역운동의 단계

2) 기독 공론장으로서의 기독 NGO

영역운동은 실천의 단계에서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야 할 것인가? 먼저 운동의 특성상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집단적인 운동을 하게 된다. 동시에 그 집단적 운동은 성경적 원리에 입각하여 개인의 이익에 상관없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어야 하며 그 실천

에 있어서 합법성, 정당성, 도덕성 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것은 하버마스(Jurgen Habermas)가 제안한 개념인 공론장(public sphere)과 유사하다. 공론장은 개방성, 자율성, 합리적 의사소통 등에 입각하여 제도정치에 의해 해결하지 못하는 보편적 규범과 합리적 정당화를 이끌어 낸다. 이러한 공론장의 성격은 영역운동의 실천의 형식으로서 착안할 수 있다. 즉 영역운동의 형식은 어떤 주제에 대한 기독교적 공론장을 만드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 이것은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의 역할과도 부합된다. 시대적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바른 길을 제시하는 선지자의 역할은 오늘날 성경의 원리에 따라 교회와 사회를 향해 하나님의 뜻을 제시하는 기독교 공론장과 맥이 닿아 있다. 구약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직접계시에 따른 배타적 카리스마에 의존하였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실천에 있어서 카리스마는 절대적 기준이었다. 이러한 절대적 카리스마도 당시 권력자나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도전을 받았다. 더욱이 사도시대 이후 오늘 날은 한 개인에게 주어졌던 카리스마에 의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개인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으나 배타적 카리스마를 증명할 수 없는 개인의 운동은 몇 가지 한계를 가진다. 먼저 그 운동의 지향점에 대해 성경 해석을 달리할 경우 쉽게 공격당할 수 있다. 이러한 공격에 대한 개인은 집단을 이루었을 때 보다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개인적 운동은 개인의 인격에 의존해야 하므로 개인이 실수로 이미지에 타격을 받게 되면 그 운동도 함께 묻혀버리기가 십상이다. 그 반면에 집단적 운동은 상대방의 공격으로부터 방어가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므로 보다 용이하고 개인적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구성원의 교체로 통해 조직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추구하는 성경적 가치에 대한 지속적 운동이 가능하게 된다.

이와 같이 기독교 공론장으로서 작동하는 기독교 NGO는 영역 운동의 기본틀이 될 수 있다. 특히 기독교 NGO의 공론화 과정에서의 성경중심의 원리와 개방성 및 합리성은 매우 중요하며 내부의 합리적 의사소통은 기독교 집단 영성과 지성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즉 공론장에서의 기독교 담론 과정으로 통해 개인과 특별한 집단의 이해가 자율적으로 배제되고 성경적 원리에 보다 가까운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 이러한 기독교 집단 지성의 언어는 한 개인의 외침보다 강한 설득력과 연속성 장기 생존성 등의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조직체를 구성한 집단이 항상 공론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

니다. 조직의 함정이라고 하는 위험성도 동시에 존재한다. 조직체는 흔히 인간의 숨겨진 이기심이 교묘히 집단적으로 표출되어 자신도 모르게 집단 이기성을 드러낼 수 있으며, 조직체 우위의 논리가 개방성, 합리성, 정당성을 압도할 수 있고, 조직의 목표를 지향하기보다 조직체 운영을 위한 조직이 될 수 있는 등 위험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나쁜 조직체는 나쁜 개인보다 더욱 폭력적이다. 따라서 기독 NGO는 이러한 위험성에 대해 항상 경계하고 개방성과 자율성 등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조직체를 운영하여야 기독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다.

3) 기독 시민운동으로서의 기독 NGO

영역운동은 구체적 실천 행위에 들어가면 시민운동(civil movement) 운동의 특징이 나타난다. 시민운동은 집단적으로 사회적 공익을 위해 기존의 정치 영역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바르게 고칠 수 있도록 일반 시민에게 캠페인을 벌이고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는 운동이다. 선진 국가에서는 시민운동의 활성화 되면서 일반 시민들이 단순히 권력에 따르는 객체에서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부여할 수 있는 숙의정치의 과정으로서 제시되고 있다. 시민운동이 기존의 정치 지배 집단에 대한 시민들의 운동으로서 대치적 운동이라면, 기독 시민운동은 경쟁하거나 대치하는 대상을 가지기 보다는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 사회 영역으로 표출시키는 확산적 운동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성경의 원리에서 기독인의 삶은 사탄의 세력들에 대한 영적 대결이라고 할 수 있으나 적대적 대상을 사회 내의 그 무엇으로 성급히 대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따라서 기독 교적 가치를 그 사회 속에 실현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는 확산적 운동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확산적 기독 시민운동으로서의 기독 NGO는 영역운동의 구체적 실천의 장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유럽의 선진국 등에서 활발한 NGO 운동은 상당 수 기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그 단체의 종류와 개수도 한국적 상황에 비해 수배에 달한다. 이러한 기독시민 운동으로서의 기독 NGO를 통한 영역운동은 구약시대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받아 그 대상을 찾아가서 잘못을 지적하고 멸망을 경고하는 선포 행위를 현대에 실천할 수 있는 실천의 조직적 형태로 이해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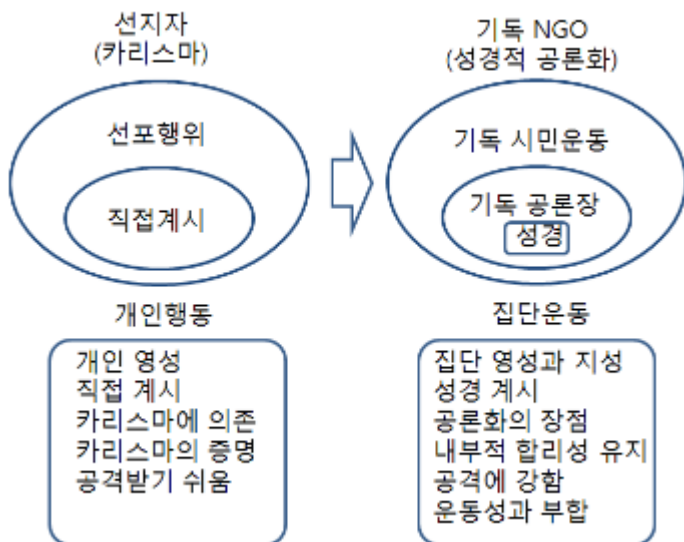


그림 3. 선지자와 기독교 NGO의 기능적 비교와 기독교 공론장과 기독교 시민운동으로서 기독교 NGO의 개념

4) 교회와 기독교 NGO

앞에서의 논의에서 영역운동은 기독교 NGO 형식을 띠면서 전개될 수밖에 없음을 볼 수 있었다. 그런데 기독교 NGO와 교회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 영역운동이 교회의 운동인가? 이러한 질문은 기독교 학생운동이나 선교단체의 지위와 관련하여 오래전에 유사한 맥락에서 논의되었던 바가 있다. 이러한 교회 병행 운동 (para-church movement) 단체는 전도와 선교 등 교회 고유의 기능을 학원이라는 특수 영역에서 독립적으로 담당하는 운동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기독교 NGO는 교회의 형식으로 실천할 수 없는 복음의 내용을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실천하는 장이라는 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개혁 신학에서의 교회는 말씀선포와 전도와 교육 등에 핵심적 역할을 부여한다. 사회적 활동에 있어서는 구제와 같은 사회 봉사 (social service) 영역은 교회가 담당할 수 있지만 입법 운동이나 캠페인과 같은 사회 활동 (social activity)은 교회의 영역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기독교 NGO 운동은 교회가 담당하지 못하는 대사회적 운동 즉 사회 활동을 제약 없이 열어갈 수 있는 틀이다. 교회는 말씀으로 성도들을 가르치고, 성도는 말씀을 기초로 사회 속에

서 기독 NGO를 구성하고 말씀의 원리를 따라 세상의 변화를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독 NGO는 교회에서 선포된 말씀을 세상에서 실천하는 장이다. 동시에 기독 NGO는 대교회적 운동으로 교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교회가 부패하여 스스로 개혁되지 못할 경우 기독 NGO가 교회개혁 운동의 장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기독 NGO는 복음의 총체성의 관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복음주의 권의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는 복음의 총체성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느냐는 것이다. 복음을 중심으로 하여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영역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낼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 동안 보수교회들이 주요한 신학적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미진했던 것은 복음주의 교회들이 교회 자체의 성장과 복음전도에 집중하고 있으며 교회가 사회적 운동을 직접 이끌어가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교회들이 직접 여기에 나설 수는 없는 것이 개혁신학의 교회론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복음의 총체성은 어떠한 형식으로 가능한 것인가? 이것은 결국 교회 자체가 아닌 그 어떤 것으로 통해 가능한 것이며 이 어떤 것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제시하는 복음에 기초하되 교회의 틀을 벗어나서 기독교인들이 스스로 구성한 기독 NGO가 현실적으로 유일한 대안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기독 NGO 운동은 교회의 영향 하에 있으면서도 교회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분업적 교회 병행 단체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5) 하나님 주권 및 영역 주권과 기독 NGO

카이퍼(Abraham Kuyper)는 화란의 신학자이자 정치인으로 개혁교회들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인물이다. 그의 영역주권 신학은 하나님 주권 신학에 기초하여 모든 물질적 창조 세계와 인간이 구성하는 세계 속에 영역주권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교회와 국가는 서로 침범할 수 없는 영역 주권이 있음을 주장한 것은 특히 기독교 국가의 전통을 가지고 적합성을 가진다. 그의 영역주권 신학은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주권 신학에서 나오며 교회 뿐 아니라 국가도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야 할 영역으로 본다. 동시에 그는 교회와 국가가 고유의 주권을 가지고 있으나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있다고 본다. 즉 교회는 국가 속에 존재하면서 보호받고 지배아래 있는 것이지만 동시에 국가는 교회의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곳이다. 여기서 영역 주권과 유기성이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면 그것의 성취는 교회의 회원이면서

시민인 기독교인들의 행위로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교회에서 선포 말씀을 들은 기독교인이 정치의 영역에서 실천하면서 성취되는 것이다. 여기서 국가를 조금 더 포괄적으로 보아 사회로 확대하면 기독교인의 실천은 곧 기독교 사회 운동, 구체적으로는 기독교 NGO 형태로서 가능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바르트(Karl Barth)는 그의 후기 저작에서 교회와 국가의 분리적 관계에 대해 동일한 의견을 가지면서도 국가에서의 역할에 대해 제한적 견해를 피력한다. 그는 교회와 국가사이에 동심원이 존재하며 교회는 내부 동심원 안에, 국가는 그 외부동심원 밖에 존재하는 것으로 묘사한다. 그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곳이며 국가는 결코 그것이 가능하지도 않으며 목표로 삼을 수도 없다고 본다. 그리하여 어떤 기독교 정당이 하나님 나라를 국가 안에 건설하려고 시도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 다만 그가 주장하는 것은 국가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유비(analogy)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해야 하는 곳이며 국가의 영역은 권력쟁취를 위해 불신자와 신자가 공존하는 곳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부 원리들을 실천할 수 있는 영역으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기독교 NGO의 위치를 보다 분명하게 보여준다. 기독교인은 교회 내에서 하나님 나라건설을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국가와 사회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유비를 실현하는 시민으로 역할이 주어지며 그 형식은 기독교 NGO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앞에서의 논의들을 정리하여 보면, 영역운동은 교회의 가르침을 따르되 교회의 밖에서 복음의 총체성을 구현하고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기독교인들이 자발적이고 자율적으로 운동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기독교 NGO는 이를 실천하는 형식으로서의 결사체라고 할 수 있다.

4. 영역운동의 실천의 내용

1) 상황 이해의 중요성

앞의 장에서 영역운동의 실천적 형식으로서 기독교 공론장과 기독교 시민운동의 개념을 포괄하는 의미의 기독교 NGO를 검토하여 보았다. 그러면 구체적 실천의 내용은 어떠해야 하는지 질문하여야 할 차례이다.

먼저 그 동안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기도하고 전도하고 구호를 외치는 것에 머무르고, 변화의 주체로서 구체적 실천 영역은 회피한 것

은 아니었는지 반성해보게 된다. 세상을 변화시키자는 구호를 주제로 내걸고 대형 집회에 많은 사람을 참여시키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구호를 외친 것으로 우리의 할 일이 다 끝난 것처럼 여기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현실 또는 상황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현실을 모르고 변화시킬 수가 없다. 즉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세상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흔히들 기독교 운동이 구호에만 그치는 첫 번째 이유는 현실에 대한 무지에 있다. 알지 못하면 개혁이 구호에 거치거나 선부른 행동이 오히려 개혁을 방해할 수도 있다. 따라서 상황에 대한 이해를 위해 특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바르트(Karl Barth)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라고 이야기 하였지만 오늘날과 같이 언론의 왜곡이 심한 시대에는 신문으로 부족하다. 전문 지식이 있어야만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있으면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이들로부터 도움 받아야 하며 상황에 대한 해석의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조언도 참고하여야 한다. 사회적 이슈가 논쟁으로 치달으면서도 해결이 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객관적 사실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자체가 이미 변화를 위한 운동의 반은 시작된 것을 의미한다. 흔히 이러한 사실은 숨기어지거나 왜곡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기독교 운동은 현실에 대한 왜곡 없는 상황에 대한 직시와 이해를 위해 특별히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의 이해는 크게 사실 관계에 대한 직시와 사실에 대한 해석으로 나누어 질 수 있다. 사실에 대한 직시라는 것은 어떤 문제의 사건이 돌출될 경우 그 자체에 대한 충분한 이해 즉 전후 관계에 따른 맥락적 이해가 필요하다. 객관적 사실에 대한 직시가 이루어 졌으면 그에 대한 해석의 과정이 필요하다. 동일한 사건을 두고 사실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면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의 해석에 대해 보다 개방적이고 전문적인 해석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방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편견을 최대한 피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전문성이라는 것은 일반인이 이해 할 수 없는 경우 이와 관련된 전문가들의 시각을 참조하여야 함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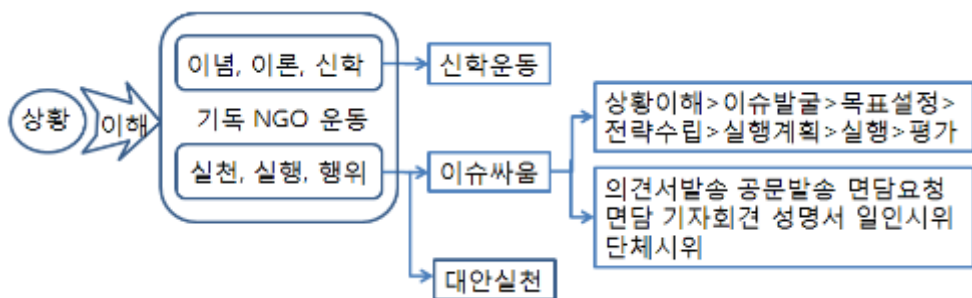


그림 4. 상황이해와 기독교 NGO의 운동 영역

2) 이론과 실천

집단적 운동이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이론적 배경이 필요하며 다음으로는 이와 같은 이론에 따라 실천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우리가 익숙한 학생 운동권이라는 것은 맑시즘 계열의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사회를 분석하고 실천적 방안을 도출한 후 정치투쟁을 통해 그 이론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영역운동은 먼저 이론 즉 신학 영역이 뒷받침이 되고 이것이 구체적 실천적 내용을 도출하여 실행에 옮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론적 논리가 갖추어지지 아니하면 실천도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여기서 이론 또는 신학이라는 것을 포괄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상황이해를 대상으로 하여 성경적 원리 안에서 해석하고 실천적 내용을 도출하여야 한다. 사실 이러한 영역은 개혁주의 신학의 과제로 남아있다. 한국의 개혁주의 신학자가 한국 사회와 이슈에 대해 충분히 성경적으로 해석하고 실천적 내용을 제시한 예는 아직 그리 많지 않다. 이것은 한국의 개혁주의 신학이 상황에 대한 고민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한국 현대사 속에서 보수신학에 기초한 교회와 교계 지도자들은 상황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신학의 내용적 결핍에 의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거나 자신의 정치적 욕망에 휘둘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개혁주의 정치신학이나 개혁주의 사회신학이 일천한데서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신학함이란 자신이 존재한 상황을 말씀으로 치열하게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영역운동 중 신학 영역은 개혁주의 신학의 과제를 담당하여야 하는 중요한 책무가 부여된다.

영역운동의 실천 영역은 기독교 NGO 형태로 나타날 경우 이슈싸움(issue

fighting)과 대안실천으로 나눌 수 있다. 이슈싸움이라는 것은 현상적으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공정하고 정의롭게 바뀌어 지도록 촉구하는 운동이다. 이것은 흔히 네거티브운동이라고 비판 받기도하는데, 일반적으로 네거티브운동은 상대방의 약점을 파해침으로 자신이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과 관련이 없는 기독교 NGO 운동을 비판할 수 있는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어쩌든 이슈싸움은 대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반대나 저항이 있을 수 있음을 각오하여야 한다. 이슈싸움을 위해서는 먼저 상황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슈를 발굴하여야 한다. 그 영역의 사실적 관계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문제 제기를 하여야 할 이슈가 도출되어야 한다. 문제를 제기하여야 할 이슈가 나타났을 때 그 내용에 대해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쳐서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 실행 방법에 따라 실행하고 평가하는 단계를 거칠 수 있다.

이슈싸움의 구체적 실행 방법은 문제점 해소를 요구하는 의견서나 공문을 발송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해당 기관 단체 또는 개인과의 면담을 요청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개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상호 소통이 불가능할 경우 기자회견이나 성명서 등을 공개적으로 발표할 수 있다. 그럼에도 변화가 없을 경우 일인시위나 단체시위에 나설 수 있다.

이슈싸움의 실행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가는 사람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일인시위나 단체시위는 기독교적이지 않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고 보는 이도 있다. 이러한 이슈싸움의 근거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의 역할을 고려하여야 한다. 선지자들은 정치적 박해를 무릅쓰고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에 대해 거침없이 이야기를 전달하였다. 동시에 오늘날 시대에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시위의 수준도 고려하여야 한다. 도덕성, 정당성, 합법성, 비폭력성의 원칙을 바탕으로 시위 형태의 의사표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대안실천 영역은 노출된 문제를 해소하는 실천적 방법으로서 스스로 그 문제의 해소를 위한 개인 또는 집단적 노력을 말한다. 이것은 일종의 대상이 없는 확산적 운동으로서 발굴된 이슈나 영역 운동의 기반 형성을 위한 다양한 대안적 실천이 가능하다. 환경의 보호를 위한 실천이나 교회개혁을 위한 운동으로서 자기 자신이 속한 교회의 변화를 스스로 시도하는 것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영역운동은 이렇듯 이슈싸움과 대안실천이 함께 이루어졌을 때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3) ‘모임’과 ‘흠어집’

SFC 동문 영역 운동의 실천은 결론적으로 모으는 운동과 흠어지는 운동이다. 모으는 운동이란 SFC 학생 시기와 동문의 시기에 SFC 내부적인 영역 운동을 학습하고 역량을 축적하기 위한 운동을 말한다. 정기적인 컨퍼런스나 저널 운동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흠어지는 운동은 SFC의 틀을 벗어나서 국내외적인 운동단체의 형태로 각 영역에서 운동을 전개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에서 활동 중인 기독교 시민 단체 또는 일반적 시민 단체에서 활동하는 것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임과 흠어짐을 어떤 비율로 정형화하기보다는 동적인 관계로 보아야 한다. 때로는 모임을 강조할 수 있으나 때로는 흠어짐이 강조될 수 도 있다. 흠어짐의 강조는 SFC의 내부적 역량이 강화된 시점 즉 모임이 성숙된 상태에서 더 발휘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는 서로 분리되거나 대비되기 보다는 서로 보완적 관계로 이해되어야 한다. SFC 동문의 영역운동의 중심에는 그 둘 사이를 매개하는 기능과 적절히 균형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있어야 한다. SFC나 동문회는 기독교 NGO에 인적 자원을 제공하고 기독교 NGO로부터 정보를 제공받고 영역 운동의 장을 제공받을 수 있다. 모임과 흠어짐이 조화롭게 균형 잡기 위해서는 현실과 영역 운동의 역량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항상 수반되어야 하며 그 운영에 있어서 역동성이 요구됨을 의미한다.



그림 5. 영역운동에서 모임과 흠어짐의
관계와 저널과 컨퍼런스의 역할

4) 실천의 방법들-저널과 컨퍼런스

영역운동의 구체적 실천의 방법을 지금까지 논의한 운동의 단계, 상황 이해, 이론과 실천, 모임과 흠어짐 등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컨퍼런스와 저널

출판과 연계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먼저 현 시점은 SFC 동문 운동의 관점에서 영역운동은 초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초기 영역운동은 모음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며 모음으로 통해 동문들의 영역운동에 대한 이해의 확산과 참여의 확대를 도모할 수 있다. 그 모음의 구체적인 방법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컨퍼런스로 통해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컨퍼런스로 그 동안 동문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영역운동의 성과와 경험을 교류하는 장으로 활용될 수 있다. 동문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고 질적 수준도 유지하기 위해 보다 치밀한 컨퍼런스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일정한 포맷에 따른 원고를 사전에 받고 심사하는 과정을 거쳐서 질적 내용을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 조기에 질적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저널운동도 영역운동의 매개로 기능할 수 있다. 영역운동의 성과는 문서로 통해 정리됨으로써 공유되고 이렇게 축적된 내용을 기반으로 한걸음 더 발전 할 수 있다. 저널을 통해 영역 운동은 개혁신학의 이론과 실천 및 상황이해의 다양한 결과물을 묶어냄으로써 영역운동의 매개 역할을 함과 동시에 신학운동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나아가 한국 개혁신학의 발전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컨퍼런스나 저널 등의 매체로 통해 동문들을 동기부여하고 네트워크화하여 다양한 영역 운동 단체에 참여하고 각자 그 영역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또한 이것을 운동원들과 함께 개최하거나 공유하여 운동원들이 자연스럽게 영역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영역에 따라 선후배 간에 연결될 수 있도록 유도 할 수 있다.

5. 나오는 말

본고에서는 영역운동의 범위와 주제별 분류 방법을 제안하여 영역운동의 방향을 정립하고자 시도하였으며, 그 영역운동의 형태는 기독교 NGO 운동의 형태가 될 수 있음을 보였으며 이것을 선지자의 기능과 대비하여 설명하였다. 구체적 실천의 방법에 있어서 이론과 실천의 영역의 과제와 방법론을 설명하였으며 모음과 흠어짐이 균형감 있게 배분되어야 함을 보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저널운동과 컨퍼런스가 영역운동의 매개체로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였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역운동은 비단 SFC 뿐 아니라 개혁신학을 표방하는 대다수의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의 과제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교회에서 선포된 복음의 총체성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운동이라는 측면에서 더 이상 회피되거나 포기되어서는 안 될 영역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SFC 동문들에 의해서 시작되고 있는 영역운동은 한국교회와 나아가 세계교회의 개혁신앙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한 걸음이 되리라 확신한다. 이러한 영역운동의 시도들로 통해 SFC에 주어졌던 비전과 사명이 한국교회와 한국사회 속에 열매 맺혀질 수 있기를 소망해본다.

현역과 함께 하는 영역운동

박윤배 교수 발제

1. 들어가면서

SFC 운동이 시작된 지도 어언 60년이 지났다. 초창기 선배들에게 현재의 운동원들은 손자녀 세대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학생신앙운동을 허락하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SFC라는 말만 들어도 자다가 일어나 뛰어나는 사람 중의 하나로 이 운동을 제대로 하지 못함에 대해 늘 송구함이 있었다. 금년 7월에 있는 전국 SFC 동문대회를 준비하면서 이 문제를 짚어보고자 프로그램을 준비하였다. 그 결과 강의를 한 세 분이 모두 SFC와 SFC 동문회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동일한 처방을 내려주었고, 참석한 동문들이 거기에 동의하여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SFC는 어떤 개인의 사조직이 아니고, 교단의 세를 확장하기 위한 수단도 아니며, 오직 강령을 구현하기 위한 운동이다.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강령에서 우리는 국내외에서 개혁 신앙의 교회를 건설하고 국가와 학원과 세계를 복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은 중, 고, 대학 시절만으로 달성될 수 없음은 모두가 인정할 것이다. 이 목적은 학생시절을 넘어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수준의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SFC가 해 온 것을 보면 초기에는 중고등학생에게, 나중 30-40년은 거의 대학생에게만 노력을 집중해 온 것을 볼 수 있다. 그것은 전국 SFC의 조직과 간사들의 배치를 보면 알 수 있는 일이다.

이들 학생 운동원들이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개인 차원에서 삶의 현장과 맞부딪히며 젊은 시절 고백한 강령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산발적으로 전개해 왔다. 그들 가운데에는 눈부신 성과를 거두어 한국 교계는 물론이고 한국 사회에도 뚜렷한 영향을 끼친 분들도 있지만, SFC 강령을 학생 시절의 추억으로 묻어두고 그와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단적인 예가 SFC 동문회의 상태이다. 지역별로 지역 동문회

가 거의 조직되어 있으나 활동은 미미하여 일 년에 한 두 번 모여 과거의 추억을 회상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지, 평생 계속해야 할 교회의 개혁과 복음화에 대한 논의와 실천운동은 미미한 실정이다. 전국 SFC 총동문회도 연간예산이 4-5백만 원에 불과하고, 100명 정도가 동문대회에 모이는 수준으로 겨우 명맥만 이어가고 있다. 이것이 바로 SFC가 지난 60년간 운동해 온 노력의 결과인 것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SFC 운동을 너무 학생 위주로 인식하고 현직에 나간 동문들을 무시하였거나 배제한 결과, 세월이 지나도 SFC에 그 인력이 축적되지 못하고 강령에서 규정한 목적을 구현하는 정도도 부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책은 무엇인가? 학생 때는 훈련하고 졸업 후에 본격적으로 강령을 구현하는 평생신앙운동체제로 바뀌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학생 때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며, 신앙 안에서 비전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진로를 설정하고 준비하며, 학원에서 복음화를 실습해 보아야 한다. 학교를 졸업하고는 자신이 속한 영역에서 복음 전도를 하며, 문화의 복음화를 통한 하나님 나라 확장에 노력해야 한다. 같은 직업 분야의 동문들과 연계하여, 후배들의 멘토가 되어야 하며, 동문대회에서는 그러한 사례를 발표하고, 서로 전략을 나누고 개발하는 것을 통해 강령의 구현을 위해 계속하여 노력해야 한다.

이상에서 제안한 내용은 현재 SFC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역을 포함하면서 그보다 넓은 사역을 추가할 것을 말하고 있다. 현역 사역에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강령 구현을 위해 개인적인 진로 설정과 진로 준비 단계이다. 이는 이미 SFC에서 개발한 3-7 교육과정에서도 포함되어 있고, 영역운동이라고 하여 전국 SFC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 SFC 위원가운데 영역담당 총무도 있고, 간사 중에서 영역담당 간사도 있어서 전혀 새로운 분야는 아니다. 하나 달라지는 것은 선배들과 멘토-멘티 관계를 통해 구체적으로 관련을 가지면서 성장하고 진출한다는 점이다. 요즘 사회적으로 각광을 받는 멘토-멘티 관계가 우리 SFC에서도 현역(훈련병)들을 잘 훈련시켜서 사회라는 전투장으로 보내어 충성된 군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효과적인 전략이라는 것이다.

영역운동과 관련하여 현역들 스스로는 영역총무가 중심이 되어 13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각 영역장들이 모임을 하고 활동을 하고 있다. 영역운동 분야에서 현역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멘토-멘티 연결, 대학생 대회에서의 영역별 모임 개최 등이 있다. 여기서는 먼저 학원 SFC에서 선후배끼리의 멘토-멘티 연결 사업에 대해 경북대학교 SFC에서 시범실시하고 있는 내용을 소개하려고 한다.

2. 경북대 SFC에서의 멘토 사업

지난 7월 전국 SFC 동문대회 이후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간사들과의 사전 조율과 동의가 중요할 것 같아서, 학교 담당 간사와 8월 초순에 협의를 하여 동의를 얻었고, 지역 간사와도 협의를 하였다. 바로, 동문들의 주소록 정비 작업이 시작되었다. 평소 보관하고 있던 주소록에 빈 내용이 많았고, 정보가 변경된 부분도 있어서 동문회 임원들을 통해 동문들의 이메일과 문자를 9월 초순까지 최대한 업데이트 하였다. 이러한 주소록 개정 작업은 이후로도 계속될 것이다. 확보된 이메일과 문자를 통해 9월 중순에 동문들에게 멘토 사업의 취지를 설명하고, 멘토를 희망하는지를 조사하였다(아래 ‘멘토를 권하는 글’ 참조). 여기에 반응한 동문들은 주로 졸업한 지 오래되어 각 분야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선배들과,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젊은 동문들에게서 멘토를 희망한다는 연락이 많이 왔다. 중간 층에 해당하는 동문들의 반응은 별로 없었다. 경북대학교 SFC 졸업생 주소록에 있는 497명 중에서 연락처가 있는 250여명에게 연락하였는데, 2주 동안에 24명이 멘토를 지원하였다.

한편, 현역들에게 멘토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였다(아래 ‘멘토 찾기 신청서’ 참조). 2주간 큰모임을 통해 작성게 하였고 10월초 까지는 이메일을 통해서도 신청을 받았다. 모두 23명의 운동원들이 신청서를 작성하였고, 학생들이 멘토에게 도움받기를 원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는데,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 부분에 대한 지도가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학생생활 속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신앙생활과 학업의 조화)

교회생활(공동체, 부흥)

신앙생활하면서 어렵고 힘들 때 들어주기

신앙의 지혜를 삶에 적용하기

진로에 대한 정보를 성경적으로 고민해 주기(달란트와 진로 결정)
진출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10월 중순에 멘토-멘티 연결 작업을 하였다. 이 자리에는 학생 대표와 동문 대표, 그리고 간사가 함께 하기로 했으나, 마침 그때 담당 간사는 출타로 함께하지 못하고, 학생 대표 4명과 동문 대표 1명이 모였다. 먼저 학생들이 작성한 신청서를 읽으며 학생들이 희망하는 특성에 맞는 멘토 지원자가 있는지를 선배 주소록에서 찾았다. 학생이 원하는 직업이나 거주지역, 나이 등에 들어맞는 멘토 지원자가 있는 경우에는 바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학생이 희망하는 직업이나 진로가 애매한 경우에는 관련 전공이나 직업을 가진 멘토 지원자를 연결하였다. 몇 경우에는 멘토 지원을 하지 않은 동문이지만 멘토를 하면 좋을 것 같은 동문에게 추가로 멘토가 되어 줄 것을 부탁하였다. 물론 그 중에는 사양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개 수락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 멘토 지원자에게는 멘티가 배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는데, 어떤 직업군에서는 지원한 선배보다 현역 운동원의 수가 현저히 적은 경우와 이제 학교를 졸업한 지 일 이년 되는 동문들의 경우에 자신들도 직업 현장에서 적응하느라 분주하여 오히려 멘토가 필요한 시기라 판단되어 멘티를 배정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연배가 더 높은 선배들이 멘토를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다음 단계로, 각 학생들에게 자신의 멘토가 누구인지 알리고, 학생들이 멘토에게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보내도록 하였다(아래 ‘자기소개서’ 참조). 그리고, 멘토를 맡은 선배들에게는 멘티와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을 나누어야 하는지에 관한 안내를 하였다(아래 ‘멘토 활동 안내’ 참조).

이제 멘토와 멘티가 개별적으로 연락하고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었다. 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학생 대표가 수시로 학생들에게 활동 내용에 대해 확인하고, 진행상태를 모니터하며, 동문 대표도 수시로 멘토들에게 활동 내용에 대해 확인하고, 모니터하기로 하였다. 그리고는 이 두 사람이 분기별로 만나 현안을 해결하기로 하였다. 신입 운동원을 포함하여 추가로 현역 운동원들의 신청서가 있으면 그때 그때 멘토를 연결하기로 하였다. 앞으로 인터넷 카페에 오픈 상담란을 설치하여 익명으로 자신의 문제를 올리면 카페에 가입한 동문들 중에서 누구나 조언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준비를 하고 있다.

3. 전국으로 확장하기

멘토 사업이 잘 진행되려면, 후배들을 신앙적으로 직업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선배들을 찾는 일이 중요하다. 한 대학 SFC나 교회 SFC의 차원에서 소속된 현역들의 멘토를 다 찾을 수 있으면 가장 좋겠으나, 그것이 여의치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역이나 지방 단위로 멘토를 선정하거나, 전국 단위로 확대하여 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출신대학의 위치와 거주 지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동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있는 대학 SFC 운동원들의 멘토가 되면 직접 만남을 가지기 쉬운 장점이 있다.

이러한 연결사업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간사이다. 이 경우에 학원 담당 간사가 해야 할 일은 현재 하고 있는 큰모임 인도, 리더 모임 인도, 조직관리 등의 업무 외에 멘토의 선정, 학생들에게 멘토 배정, 멘토-멘티 만남 주선, 후속 관리 등의 업무가 추가되는 것이다. 초기에는 추가되는 이 업무가 매우 과중할 것이므로 그 학교를 졸업한 선배들과 협력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나, 점차 새로 배정되는 학생이나 추가되는 멘토의 숫자가 많지 않으므로 업무의 부하량은 많지 않을 것이다. 지역이나 전국 단위에서 이 사역을 담당하는(가능하면 전담하는) 간사를 두면 더욱 좋을 것이다. 아울러 학원담당 간사의 직무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학생지도 업무에 집중하도록 직무기술(job description)을 새로 규정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대학생대회에서의 영역운동 협력에 대해 논의해 보겠다. 대학생대회에서는 1년간 현역들이 추진한 영역운동에 대한 보고나 결산도 하고, 참가한 운동원들에게 영역운동에 참여할 것을 요청도 하는 중요한 기회이다. 거기에다가 각 영역별로 현장에 있는 동문들을 모셔서 생생한 현장 얘기를 들어보고 질의응답을 하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 이런 모임은 영역별로 세분화하고, 학생들의 준비수준별로도 세분화하여 (진로 소개와 탐색, 직업 찾기, 구체적인 직장활동 이야기) 수강인원이 정해져 있는 소규모 선택식 강의를 되도록 운영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하면 대학생대회를 통해서 현역과 동문간의 추가적인 멘토-멘티 관계가 확장되어 가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모임을 담당할 각 분야의 동문들은 동문회에서 추

천하고 대학생대회 준비위원회에서 선정하는 방식으로 하면 될 것이다. 현재 전국 SFC 동문회에서는 매년 하는 동문대회를 대학생대회 마지막 날과 연계하여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으므로, 대학생대회 마지막 날 오후 시간을 영역운동에 할애하여 시간을 사용하면 문제가 없으리라 본다.

이러한 방식으로 SFC운동을 해 나가게 되면, 처음에 지적하였던 SFC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으며, 현역을 졸업하고 뿔뿔이 흩어지던 사람들을 자신의 멘토였던 선배, 자신의 멘티인 후배들과 연계하여 축적해 나갈 수가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네트워크가 개체 학원이나 교회를 넘어서 지역, 전국 단위로 연계되면 평생신앙운동이 되어 SFC 강령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목적인 개혁신앙의 교회건설과 복음화를 달성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반갑습니다.

무뎀던 여름과 무섭던 태풍도 가고 이제 추석과 함께 가을이 왔습니다.
우리의 시간도 지나,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맺은 열매를 보여야 할 때가 오겠지요.

이 땅에 SFC가 시작된지 60년이 되었고, 경북대 SFC에도 45기 2012학번이 들어와 있으니 많은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우리가 젊은 시절 고백하였던 국가와 세계의 복음화, 그리고 개척교회의 건설은 결코 학생시절에 달성할 수 없고 평생을 통해 추구해 나가야 하는 목적임에 동의하실줄 압니다. 학생시절에는 복음 안에서 인생을 설계하고 학원 복음화를 위해 노력하고, 학교를 졸업하고 현장에 나와서는 강령이 말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이 SFC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 호서대학교에서 모였던 2012 전국 SFC 동문대회에서 이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고, 이러한 관점으로 현역과 동문 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하고 현재 전국의 간사들과 협의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 중의 한 사업으로 동문이 현역의 멘토가 되어 지원해 주는 것을 우리 경북대학교 SFC에서 전국 최초로 시범실시하려고 합니다. 이번 학기에 시작하고 노하우를 정리하여 내년부터 전국의 각 학원 SFC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에 동지 여러분의 참여를 요청합니다.

지금 현역들로부터 자신들이 도움을 받기 원하는 분야와 내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초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선배들을 멘토로 지정해 주려고 합니다. 멘토 한 분이 한 명의 후배와 결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해당 분야의 선배가 부족한 경우에는 2~3명의 현역들이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 멘토로 헌신해 주시는 분들에게 다시 자세한 안내가 나가겠지만, 여러분들의 믿음과 경험으로 신앙, 교회, 진로, 직업, 사회 등의 측면에서 후배들의 상태를 파악하고 도움을 주면 됩니다. 직접 만나는 것은 1년에 1~2번이면 되고 나머지는 온라인이나 SNS 등을 통해 만나면 되므로 큰 부담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의 경륜이 후배들에게 전달되어 그들의 시향작을 줄이고, 나아가서 복음화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하기를 바랍니다. 같은 분야에 있는 졸업생들끼리도 네트워크를 만들어 정보를 교류하고 협

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동문운동도 활발해 지고, 후배들도 잘 자라고, 선배와 후배 간의 유대도 좋아지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듣고 후배들의 멘토로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제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에 대해 의문이 있거나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것도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여러 동지들의 분투와 건승을 빕니다.

산격동 캠퍼스에서
경북대학교 학생신앙운동 6기 000 드림

여러분의 보다는은 성장을 위해 선배들이 멘토가 되어주려고 합니다. 아
예에 자신이 원하는 내용을 적어주면 각자에게 적합한 멘토를 추천하는데
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개인적인 내용은 비밀로 지킵니다.

1. 멘토에게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내용(신앙, 학업, 진로, 인생, 직업, 교회 등)을 조금 구체적으로 써 주세요.

2. 어떤 선배를 멘토로 모시기를 바라는지 (나이, 성별, 거주지역, 출신 학과, 현재 직업, 과거 경력, 결혼 유무, 관심사 등) 조금 구체적으로 써 주세요.

3. 기타 이 사업과 관련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적어주세요.

자기소개서

멘토 선배들에게 보낼 자기 소개서입니다. 자신의 간단한 소개를 시작으로 성장배경(가정, 개인 신앙, 학창시절), 진로와 앞으로의 삶의 방향, 취미, 좋아하는 것, 자신이 가진 현재의 고민 등을 자유로운 형식(A4 반 장 이상)으로 써 주시면 됩니다. 멘토에게 보낼 본인의 사진을 첨부하셔도 좋습니다.

이름 :
전공(학번) :
출석교회 :
연락처 :

예시) 글 형태를 참고만 하십시오.

안녕하세요 OO선배님, 선배님과 멘토-멘티 관계를 맺게 되어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 이름은 홍길동이고 현재 OO학과 3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집은 OO으로 교회는 OO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을 가진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집안 분위기도 화목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학창시절 교우관계도 원만했고, 학교에서 공부도 곧 잘 했습니다. 그러다 대학교 들어오면서부터 제가 믿는 신앙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해 참 많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바쁜 대학 생활 가운데 어떻게 말씀과 기도로 경건을 훈련하고 연습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인지, 또한 내가 전공하는 이 분야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어떠한 일들을 할 수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저는 앞으로 통역사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전공하는 분야를 통해 국제 무역에서 통역을 담당하는 전문직을 직업으로 가지고 싶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 쪽 진로를 나아가는 데 있어 선배님과 잦은 만남과 대화를 통해 여러 가지 조언과 상담을 받았으면 합니다

SFC를 통해 이런 만남을 가지게 하신 하나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선배님과의 만남이 기대가 됩니다. 저도 선배님이 가지신 직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기쁨으로 직업을 잘 감당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멘토 활동 안내

먼저 바쁜 시간을 내어 후배들을 위해 헌신해 주심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현역 운동원들의 신청서를 바탕으로 최대한 근접하는 선배들을 멘토와 멘티로 연결하였습니다. 이제 곧 여러분의 멘티 학생이 자기소개서를 보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로부터 시작되는 여러분의 멘토 활동에 대해 간단하게 안내드리니 이 사업이 충실하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멘티 학생과의 만남에서 오는 모든 과정은 비밀로 해주시고, 선배 신앙인의 입장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차원에서 국가와 세계의 복음화라는 SFC 강령의 목적 달성을 늘 기억하고 멘토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멘티 학생과의 만남은 직접 만남이 가장 좋겠으나 여러 가지 제약이 있으므로, 이메일이나 문자, 카톡, 페이스북, 화상통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므로 의논하여 편리한 것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처음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데는 직접 만남이 가장 좋을 것이므로 가능한 시간을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멘티 학생이 여러분의 직장이나 편리한 장소로 찾아오게 하여, 직접 만나서 맛있는 것 사주면서 얘기를 들어주다 보면 좋은 관계가 형성될 것으로 봅니다. 편한 관계를 가지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될 것입니다.

도착한 멘티 학생의 자기소개서를 잘 읽어보고 그 학생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바랍니다. 학생의 신앙, 인성, 학업, 비전, 진로 등을 점검해 보시고, 어떤 점이 가장 큰 문제인지를 알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과의 대화를 통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정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의 상황이나 준비 상태를 점검해 보고 난 다음에,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상태로, 학생들의 관심사 수준이 아주 다양합니다. 어떤 학생은 아직 어떻게 살아야 인생을 잘 사는 것인지가 정립이 안 된 경우도 있고, 자신의 미래 직업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진로는 정했으나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하거나 직장에 들어간 이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궁금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 건강문제나, 교회생활문제, 인간관계 문제 등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문제의 종류와 수준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

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정보나 경험은 과거의 것으로, 현재의 학생에게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해결책은 지시하기 보다 참고자료로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 전국 SFC 최초로 시범 실시되는 우리 대학교 멘토 사업이 잘 정착되기 위해서 다음의 내용에 대해서도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멘토와의 관계에서 어떤 내용들이 오가고 있는지, 멘토나 멘티에게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것이 있는지, 멘토 사업 자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서 1~2달에 한 번씩 저에게 이메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측에서도 학생 대표가 같은 방식으로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생기는 문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려고 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1. 교육 영역운동을 논하기 전에 SFC의 영역 운동 전체에 대한 명확한 정립이 필요하다.

1) 대학 선교단체로서 SFC가 타 선교단체와 일정 정도의 차별성을 가지고 영역 운동을 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① SFC 운동원들이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선포하고 실현해야 함을 깨닫고 내면화하게 하며, 이를 위한 기본적인 훈련을 하는 것

② SFC 운동원들이 교회와 가정, 사회와 국가의 전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이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함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이를 위해 각자가 해야 될 일을 찾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

③ SFC 운동원들이 자신의 전공이나 혹은 향후 직업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영역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을 고민하고, 비전을 갖고 준비하도록 돕고 훈련하는 것

2) SFC가 동문들을 통해 영역운동을 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① SFC 동문들이 자신의 전 삶의 영역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선포하고 적용하며 살아가도록 돕는 것

② SFC 동문들이 우리 사회나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체적 노력을 하거나 자신이 속한 직업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기 위한 공동체적 노력을 해 나가도록 돕는 것

3) 현역 SFC 운동원들을 대상으로 한 영역 운동

① 전체 SFC 교육과정 내에 영역 운동의 관점을 담아냄(경건훈련, 성경공부, 선교훈련 등 모든 프로그램과 활동 가운데 영역 운동의 관점을 담고 있어야 한다)

② 기독교 세계관에 바탕을 두고 시대와 세상을 읽는 안목 열기(큰 모임, 방학 중 모임, 강연회, 수련회 등)

③ 관심별, 전공별 모임(수련회, 비전트립 등)

④ 사회 참여 운동(컨닝 안 하기, 공명선거운동, 북한 돕기 등)

⑤ 관심별, 희망직업별 동문 선배들과 연결하기(직장 탐방, 멘토링 등)

⑥ 학생들의 관심이나 직업 영역을 따라 기독 운동 단체나 기독 직능인 모임과 연결시켜주기

⇒ 어려움

한국 교회 중고등부 교육의 약화로 인해 대학 SFC가 신앙의 기초와 경건훈련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현실, 그리고 SFC 신입생 감소로 인해 SFC 유지에 신경을 써야 하는 현실로 인해, 영역운동으로 더 깊이 나아가기 힘든 상황

⇒ 과제

관심별, 희망직업별 동문 선배들과 연결해서 직장 탐방과 인턴십, 멘토링을 강화하는 것영역운동과 관련해서 매우 실제적인 방법이고, 동문들에게도 건강한 자극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쏟아 살펴보면 좋겠다.

4) SFC 동문들을 대상으로 한 영역 운동

① 동문들이 졸업 후에도 SFC 동문이라는 정체성을 가질 수 있고, 영역운동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기본적인 체제 마련

- SFC 졸업과 동시에 CMS 회비 납부를 통한 동문회 가입 절차(월 1,000원 혹은 2,000원부터 시작)

- SFC 동문 소식지 발간(월간이 힘들면, 계간 혹은 반기 체제도 가능, 영역운동에 대한 지속적인 리마인드 가능, 개인 정보 변경 추적이 가능)

② 대학별 혹은 지역별 동문들이 현역 SFC 동문들의 관심별, 희망직업별 멘토 역할 하기

- SFC 차원에서 시범 대학, 시범 지역을 운영할 필요도 있다.

- 이것을 잘 발전시키면 SFC 정신을 잘 담은 탁월한 교육과정이 될 수도 있다.

- 대학별 혹은 지역별 동문회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이를 계기로 지역 단위에서 관심별, 직업별 영역 모임이 생기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음.

③ SFC 동문들이 중심이 된 관심별, 직업별 모임 조직하고 운동하기

-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꼭 해야 될 운동 혹은 직능인 모임인데, 전혀 하고 있지 않거나 혹은 미약하게 진행되고 있는 영역의 경우 SFC

에서 나름의 기획력을 가지고 운동이나 모임을 조직할 필요가 있다.(이 경우 현역 SFC 운동원들이 미약하게나마 시작을 하고 이들이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도 이 모임과 운동을 키워가는 방식이 제일 좋다.)

- 이미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조직이 있는 분야나 직능이라 하더라도, SFC 내에서 SFC의 색깔을 가지고 별도의 모임이나 운동을 하기를 원하는 그룹이 있을 경우 이를 지원(단 이 경우에는 기존의 모임이나 운동과 협력 혹은 연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 어려움

SFC 동문들의 경우 기본적인 조직 관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 동문 대중의 삶을 돕는 후속 서비스나 그들의 힘을 각 영역별로 결집해낼 수가 없는 것이다. 회비납부와 소식지 발간 등을 통한 기본적인 동문 관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문들을 통한 영역 운동은 사상누각일 수밖에 없다.

⇒ 과제

동문 CMS 체계 구축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졸업생들과 각 지역별로 연락이 닿는 동문들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현역 SFC 운동원들과 동문들을 관심이나 직업을 따라 멘토링, 인턴십 등을 통해 연결하는 작업도 시급한 과제로 보인다.

2. 교육영역 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

1) 앞에서 살펴본 영역운동의 정의에 비추어 볼 때 교육영역 운동이란 다음 몇 가지 부문으로 다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모든 운동원들과 동문들이 자신이 삶의 한 영역으로서 존재하는 ‘교육’을 어떻게 보고 대응할 것인가 하는 부문

- 한국 교육 체제와 교육 문화를 기독교적 관점에서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 자신이 12년 동안 받아왔던 교육과 이 가운데서 경험한 교육으로 인한 상처들을 어떻게 치유하고 극복해 갈 것인가?

- 왜곡된 한국의 교육 현실 가운데서 우리는 일평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공부해 갈 것인가?

- 왜곡된 한국의 교육 현실 가운데 내 자녀는 어떻게 교육해가야 하는가?

② 기독교학부모 혹은 기독교 시민으로서 우리 교육을 바꾸어가기 위한 모임 혹은 운동

- 자녀 양육 모임
- 공동 육아
- 기독교 홈스쿨 혹은 기독교 대안학교 운동
- 학교를 위한 기도 모임
- 기독교 학부모 운동
-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등 교육 시민 운동 참여

③ 교육 관련 ‘직업’ 영역 운동

- 기독교 교사 모임
- ‘학원 교사’, ‘학습지 교사’ 등 다양한 형태의 사교육 종사 기독교인 모임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필요하다.

2) 대학 SFC 에서의 교육영역 운동

① 전체 SFC 운동원 대상

- 한국 교육 전체를 기독교적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길러 줌
- 왜곡된 한국 교육 가운데서 우리 각자는 어떻게 공부해가야 할지에 대한 논의하고 생각할 수 있는 장을 열어줌
- 왜곡된 교육 현실 가운데서 자녀를 어떻게 길러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적인 모델들을 찾아보거나 초청강연 혹은 탐방의 기회를 가짐

② 사대, 교대생

- 사대, 교대생을 위한 예비기독교교사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 선배들의 학교를 찾아가는 ‘우리만의 교생실습’, 선배 기독교교사 초청, 기독교교사대회 참여, 좋은교사운동의 연수 듣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기독교교사의 삶을 익히도록 도와야 한다.

3) SFC 동문들의 교육영역 운동

① 기독교 학부모, 기독교 시민으로서의 교육 운동

- 앞에서 제시한 다양한 운동이 가능하다.

② 기독교교사운동

- 현재 활동 중인 다양한 기독교교사모임에 참여하는 일
- SFC 교사모임을 만들어 활동하는 일

3. SFC 교육영역 운동 관련, 우리의 현실 및 전략

1) SFC 교사모임 관련

① 현 상황

- SFC 출신 교사들 가운데 여러 기독교사단체에 속하여 훈련을 받고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 SFC 교사모임은 임우진 간사의 지도하에 있던 부산교대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7-8년 전부터 모임을 시작했고, 지금도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② 전략

- 일단 SFC 출신의 교사들이 기존의 기독교사단체와 잘 연결이 되어 그곳에서 훈련을 더 받고 기독교사의 삶을 잘 살아내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일 수 있다.
- SFC의 이름으로 교사모임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경우 이들을 엮되, 이들이 독자적인 모임을 하면서도 좋은교사운동이라는 연합 운동과 긴밀한 연대 가운데서 활동을 해야 생명력을 이어갈 수 있고, 또 적절하게 기여할 수가 있다.
- 각 대학 혹은 지역별로 예비교사들과 선배교사들을 엮어서 초청강연, 교생실습 등으로 긴밀한 연대를 갖게 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게 필요하다. 이러한 멘토링이 잘 될 경우 학부 SFC 운동원들도 자신의 비전을 구체화할 수 있고, 또 선배 동문 교사들도 SFC 출신 기독교사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해갈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발전하면 좀 더 내실있는 SFC 교사모임으로 활성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 현재 SFC 출신으로서 여러 기독교사단체들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동문들을 1년에 한 차례 정도 지역별로 모으는 작업들은 가능할 것이다. 이들에게는 SFC 교사모임을 만들어 헌신하는 것을 요구하기보다는 후배 SFC 교대, 사대생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요청하는 작업을 하면 좋을 것이다.

2) SFC 교육운동 관련

① 현 상황

- 이와 관련해서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아무 것도 없다. 하지만 자원은 충분히 있고, 자녀 교육과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문들을 묶어낼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

② 전략

- 지역 단위, 그리고 비슷한 연령대 동문들끼리 소그룹을 만들어 육아 관련 나눔, 자녀와 교육을 위한 기도 모임, 교육 품앗이나 공동 육아 등 다양한 교육 관련 모임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모임들이 여기저기서 생기면 연합해서 조금 더 진전된 운동을 할 수도 있다.
- SFC 동문 조직이 어느 정도 갖추어지고 소식지가 나갈 수 있으면, 교육 관련 실천 운동을 할 수도 있다.

3) 학부 SFC 운동원 관련

① 현 상황

- 현 SFC의 교육과정을 정확히 잘 모르지만, 교대생이나 사대생을 기독교사로 키워내는 특화된 프로그램은 없어 보인다. 그리고 동문 선배 교사들과의 연결도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 교대, 사대생이 아닌 일반 운동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의 삶의 영역 좀 더 구체적으로 교육을 고민하게 하는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다.

② 전략

- 전체 운동원들을 대상으로 지금 자신들의 삶과 연관된 ‘교육’ 문제를 고민하도록 하고, 미래 자녀교육에 대해서도 고민할 수 있는 단초를 주는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 교대, 사대생을 위한 교육과정은 그 지역의 기독교사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만들어볼 수 있다.
- 선배 동문 기독교사들과의 깊은 연대는 꼭 필요하다.

1. 처치형 교회로서의 한국교회

독일의 신학자 트뢴치(Ernst Trolch)는 교회의 형태를 처치형 (church type) 교회, 디노미네이터형 (denomination type) 교회, 섹터형 (sect type) 교회로 나누었다. 처치형 교회는 전국에 걸쳐 교회가 분포하고 그 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확고한 조직체를 구성한 교회로서 교회의 완성 단계이며, 섹터형 교회는 이와는 반대로 소수의 교회로서 사회의 핍박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느슨한 조직체로서 교회의 초기단계로 정의하였다. 교회가 섹터에서 연속적으로 처치형으로 변모되어가는 것을 종교사회학적 관점에서 분석한 것이다. 그의 이러한 분석은 그의 신학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국교회를 분석하는 기준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의 논리를 신약에 적용하면 예수님 당시 두개의 교회가 대치하는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즉 유대교 처치형 교회와 예수님의 섹터형 교회이다. 아는 바와 같이 유대교 처치형 교회는 예수님의 섹터형 교회를 핍박하고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사형시키기 까지 하였다. 결국 유대교 처치교회는 이후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 중세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초기에는 섹터적 교회로서 복음의 열정과 순수함이 있었지만 국교화 이후 제도화 조직화 되면서 조직교회의 함정에 빠졌던 것이다. 신약에 두개의 교회가 존재한다는 점은 오늘날의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참고하여야 할 바가 크다. 그 동안 한국의 개신교는 예수님의 섹터 교회에 대한 동일시(identify)하였지만 유대 처치교회와 동일시하는 경우를 본적이 거의 없다. 그러나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처치교회에 가까운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한국교회가 처치형 교회로 성장해 가면서 조직 교회의 함정 즉, 교회권력 투쟁, 변형된 성직 매매, 성직의 계급화, 미흡한 교직자의 양산, 물량주의 등의 제반의 교회 타락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이미 소수가 아니라 다수가 되었으며, 대통령을 3번이나 배출할 정

도의 기득권층이 되었다. 과거에는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을 감수한다는 의미였지만 이제는 사회적 성공을 위해서는 크리스천이 되고 교회를 이용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처치형 교회는 부패의 가능성이 현격히 증대된다. 이제 한국 교회는 고난을 받는 자리보다는 영광을 얻는 자리로 바뀌어 있는 것은 아닌가?

2. 교회개혁 운동의 우선성

영역운동은 크게 대교회 운동과 대사회 운동으로 대별할 수 있다. 여기서 대교회 운동은 기독 영역 운동에 있어서 필수적인 운동 주제라고 할 수 있다. 변화의 주체가 가진 모순에 대한 해소 없이 변화 대상을 변화시킬 수 없으며, 교회를 교회되게 할 수 있는 것도 결국 교회내의 누군가에 의해 이루어 져야한다. 따라서 대교회적 개혁 운동은 어떤 대사회 운동보다 우선적이라고 할 수 있다.

대교회 운동에 있어서 교회개혁운동의 필요성은 오늘날 한국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였으나 곳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보다는 스스로 부패하고 있는 현상들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많은 건전한 교회와 그리스도인 들이 곳곳에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봉사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이러한 현실은 가슴 아픈 일이다. 안타깝게도 한국교회의 자정 능력을 이미 상당부분 상실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교회개혁이라는 이슈와 한국교회의 위기를 이야기 한지는 이미 오래 전이며, 원론적 교회개혁에 대한 이슈들은 이미 수도 없이 제기되어 졌다. 한국교회 신뢰도가 3개 종교 중 최하위로 점점 추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회 교단이나 단체들에게 있어서 개혁의 소리는 있었지만 실천되어가고 있는 예를 보기가 매우 어렵다. 교회개혁을 목표로 하는 대표적 기독NGO 교회개혁실천연대가 출범한지가 10여년이 되었다. 그러나 교회개혁의 목소리는 교회의 부패의 관성을 돌려놓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인 상황이다. 심지어는 세계 개신교 역사상 가장 부패한 교회가 현재의 한국교회라는 평가를 듣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교회개혁운동에 SFC 영역운동이 적극 참여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SFC의 출발이 한국교회의 신사참배로 왜곡된 한국교회에 대한 현실 인식에서 출발한 것을 생각한다면 교회개혁 과제는 우선적인 영역운동 영역이다. 만약 이 시점에서 SFC가 교회개혁운동에 무관심한다면 SFC의 강령과 본질을 포기하는 것이며 개혁의 주체로서의 역량을 상실했음을 의미한다.

3. 교회개혁운동과 상황이해

집단적 영역 운동을 목표로 하였을 때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운동 영역의 실제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전제로 하여야 한다는 원리를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교회개혁운동은 그 대상인 한국교회의 현실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신문이나 온라인 매체로 통해 한국교회 현실에 대한 이해를 넓혀갈 수 있다. 또한 한국교회의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 각종 객관적 자료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실제의 내용을 직접 접하는 것도 중요하다. 상황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면 자연스럽게 그 과정에서 개혁운동의 이슈들을 발견할 수 있다.

다음으로 기존의 교회개혁운동 NGO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NGO의 취지에 동의가 되면 개인적으로 참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SFC의 이름으로 특수한 영역에서 교회개혁 NGO를 만들고 단체 간의 협력이나 연대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세습반대 연대를 구성하여 다른 단체와 연합하여 개혁운동을 할 수 있다.

4. 교회개혁을 위한 신학

교회개혁운동에 있어서 신학운동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교회의 부패는 그 시대의 신학과도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교회의 신학의 문제점 중 하나는 미국의 교회성장신학이 비판 없이 수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교회성장신학은 교회의 대형화를 지향하게 만들며 소형교회를 문제가 있는 교회로 이해하게 만드는 오류를 낳았다. 이러한 신학은 한국인의 물질적 욕망과 맞물려 섬김과 낮아짐 보다는 축복과 번영의 메시지에 환호하게 만들었다. 교회개혁운동의 신학 운동은 신학을 전공하거나 목회하는 동문들이 관심을 특별히 가져야 할 영역이다. 개혁주의 신학에 기반하여 한국교회의 신학풍토를 개혁할 수 있는 방법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5. 이슈싸움과 대안실천

먼저 교회개혁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일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 협력하고 중보 기도하는 운동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 운동 영역에서 교회개혁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은 이슈싸움(issue fighting) 운동이다. 이것은 한국교회의 문제를 제거하기 위한 대응으로 성경적 원리에 따라 문제점을 제기하고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다. 이미 드러나고 있는 대형

교회 문제, 총회 노회 당회로 이어지는 치리회의 문제, 교회 세습 문제, 후임 목회자 초빙과 관련된 갈등 등 그 문제점은 개혁연대의 상담 케이스를 비추어 볼 때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미 동문들은 한국교회 고신 교단 또는 여러 교단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더욱 실제적인 운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교회의 문제에 대해 소극적으로 생각하던 동문들에게 교회개혁의 의식을 확산시키고 참여를 독려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고신 교단 내에 많은 SFC 출신 목회자나 지도자들이 있으므로 한기총 탈퇴운동 등 교회개혁과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개혁 의지를 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대안 실천은 교회개혁운동을 개인이나 집단적 차원에서 스스로 개혁을 위한 운동을 실천하는 것이다. 특히 교회 내 갈등을 최소화하고 교회내 목회자나 지도자의 전횡을 최소화 하기위한 장치로서 정관도입 운동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6. 교회개혁운동의 현황

현재 국내의 교회개혁운동은 전국적 운동으로 교회개혁실천연대 (개혁연대)와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윤실) 등이 있다. 지역별로는 부산의 경우 부산교회개혁연대 (부개연)이 있으며 대구의 경우 기윤실과 성서대구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다른 지역에도 이러한 모임이 활성화되고 조직화 될 필요가 있다. 현재 개혁연대 등의 교회개혁운동은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참여가 부족한 현실이다. 따라서 영역운동 중 교회개혁 이슈에 관심을 가진 동문들은 회원가입과 회비납부 및 회원활동 운동에 적극 참여하기를 바라며 추후 핵심 활동가로 활동하는 예가 많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 현재 개혁연대에는 SFC가 참여단체로 활동하고 있으며 기윤실에도 지역별로 동문들이 상당수 참여하고 있다.

1. NGO영역의 방향

NGO영역은 동문들과 운동원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NGO를 소개하여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필요시 새로운 NGO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운동을 전개 한다.

2. 핵심가치

NGO영역의 핵심가치를 사랑, 공의, 나눔 등으로 한다.

3. 활동계획

- 1) 1인 1NGO가입운동 -모다 많은 동문들과 운동원들이 NGO활동을 통해 이 땅위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NGO에 가입 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 2) 동문대회, 대학생대회시 NGO를 소개하는 부스, 홍보물 등을 배포 한다.
- 3) 동문들이 재능기부 등 NGO를 위한 실질적인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돕는다.
- 4) 매월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활동내용을 정리하고 문제점을 개선 한다.
- 5) 모범적인 활동사례를 개혁신앙지 등을 통해 동문들과 운동원들에게 소개한다.
- 6) 필요시 새로운 NGO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선교지원 영역운동

허태영 간사 발제

동문들의 선교영역운동은 개혁주의 선교신학연구와 선교사역지원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겠다.

I. 개혁주의 선교신학 연구

SFC선교(동문,현역)운동에 개혁신학적인 원리를 제공하므로 좀 더 효과적으로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다. 이 부분은 선교부분 뿐 아니라 영역운동 전반에 대해 필요한 작업이다. 개혁선교신학 연구는 소수의 동문들이 감당하겠지만 정신과 원리를 다루는 부분으로 아주 중요하다. 세계와 선교현장의 변화 속에서 개혁주의신앙운동인 학생신앙운동의 선교운동을 점검하고 방향을 제안할 수 있는 일이 될 것이다.

II. SFC 선교사역지원

1. 현역운동원 지원(멘토 사역): 선교사 동문들 연락처 정리와 선교관심운동원 연결

동문선교사들의 연락처와 주요사역을 정리해서 선교에 관심 있는 운동원들을 연결시켜 선교영역의 헌신자로 성찰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사역을 통해 선교사로 섬기는 동문들에게도 SFC강령구현의 다시 다짐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SFC해외지부 지원사역: 지부소개와 협력사역 제안

동문들에게 SFC해외지부 사역과 국제부 사역을 홍보하므로 구체적으로 협력 할 수 있는 장을 알려주는 일이다. 동문들이 직접 기도하고 지원 할 뿐 아니라 본인이 속한 교회의 선교사역과 협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개혁신앙인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삶의 현장에서 선교적 삶을 사는 것은 SFC동문으로서 기본적인 사항이다. 이제 선교영역운동이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다.

III. 실천방향

1. 개혁주의 선교신학 발표

동문 중 SFC선교사역의 사상적 기초가 되는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선교를 이해하는 논문을 발표하고 그 결과물들을 공유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처음에는 비정기적이겠지만 이 작업을 뜻 있는 동문들을 중심으로 시작하고 점차적으로 활성화 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동문선교사들과 SFC해외지부 정보를 수집(2013년 상반기 완료)

2013년 상반기에 동문선교사들의 자료를 수집하는 일을 마무리하고, 6개월에 1회 이상 수정보안 하는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3. 멘토 시스템

2013년 상반기에 시작할 계획이다. 참가를 원하는 선교사동문들을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운동원들을 연결시키면 될 것이다. 동문회에서 멘토시스템을 운영하는 원리를 선교영역(지리적 제한)이 갖는 장단점을 고려하여 만들어 가면 될 것으로 본다.

4. 동문들의 SFC해외지부사역 지원

이미 SFC국제사역부를 통해 일부분 동문들이 협력을 하고 있다. 동문들의 요구와 SFC해외지부의 요청사역들을 수시로 파악하여 연결시켜 가는 작업을 계속 할 것이다. 좀 더 효과적인 사역이 되기 위해 해외지부의 필요를 실시간으로 체크해서 홍보하고, 동문들의 참여를 독려할 것이다.

5. 선교영역에 협력할 동문 확보

이상의 선교영역사역을 위해 지역별로(서울경기, 충청, 전라, 경남, 대구경북, 부산, 진주, 제주, 해외 등) 권역별책임자를 세우는 일을 시작하여 2013년 상반기에 완료하고 여름동문대회 때까지 전국과 해외 선교영역네

트랙을 완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지역과 함께 선교영역에서 공부했거나 하고 있는 동문들의 상황도 점검하여 학문파트의 네트워크를 상반기에 완성할 계획이다.

마치며

2013년 여름대학생대회는 대학생대회 40주년 기념 대회이다. 이 때 동문대회와 국제리더십컨퍼런스가 함께 열린다. 이 시점에 맞춰 선교동문영역이 실제적 사역을 감당하며 운동조직체로 모습을 가추는 시점으로 생각하고 준비해 나갈 것이다.

우리의 사명. “개혁주의 신앙의 세계교회 건설과 세계의 복음화!”

대상 : 경제와 경영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동문(경제연구소 연구원, 경제 경영 등 교수, 기업 CEO, 금융분야 종사자 등)

목적 : 경제 경영분야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냄을 목적으로 한다.

영역운동 방안

1. 하나님의 뜻 찾기

- 하나님의 말씀에서 경제 경영 분야에 대해 말씀하시고 계신 것을 체계적으로 정립

- 개혁주의 신학의 관점에서 경제 경영의 체계적 이념 수립

2. 삶의 영역에서 실천 방안 제시

-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실천 방안 찾기

- 개혁주의 신앙에 근거한 실천 원칙 마련하기

- 동문 실천 강령 채택

3. 영역운동 전개 방향

- 정례 학술 연구 발표회 개최

- 영역운동 실천 방안 발표회 개최

- 기고문 또는 소책자발간 등을 통해 이념적 토대 지속적으로 발전 시켜나감

영역운동 첫 걸음

1. 영역운동 멤버 모집

- SFC동문중 경제 경영 영역운동에 동참할 동역자 구성

- 대학생 수련회 등을 통하여 특강시간 마련 -> 미래의 동문 발굴의 계기로 삼고 지속적으로 연개 활동 전개

2. 영역운동 활동 전개

- 홈페이지, 앱 등을 통해 동문 운동의 실천 방안 지속적으로 알림

- 출판 및 강연 활동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운동의 영역을 넓혀 나감